

제주 잠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안미정 (한국해양대학교)

2016년 12월 제주도 잠녀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여기에는 제주도 지방 정부와 언론기관 등의 제주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이 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낸 사회적 배경에는 1990년대를 거치며 한국사회에 빠르게 확산된 세계화 담론과도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천년의 도래를 알리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선언들이 확산되었고, 2000년 들어 제주 잠녀에 대한 주목은 한 언론사의 기획기사의 연재와 2001년 잠녀의 문명사적 가치를 탐색한 학술적 접근, 그리고 2006년 제주도해녀박물관의 개관 등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라 본다.

필자는 1997년 성산읍 온평리에서 설문조사를 그리고 2005년 봄부터 1년간 구좌읍 김녕리에서 현지연구(fieldwork)을 하였는데, 돌이켜보면 이 시간대는 한국 사회가 세계화와 21세기 문화 담론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었다. 잠녀 연구에 대해 일별하여 무언가를 말하기에는 필자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학회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를 계기로 삼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더듬어 보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책무이기도 하고 학술적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이 글에 다뤄지지 않은 연구들이나 작품들이 존재하며 그 모두를 다루기에는 필자의 한계가 있기에 몇 가지 초점에 따라 제한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I. 초기 잠녀 연구의 시작

해방 후 제주도 잠녀에 대한 연구는 우선 분과학문의 영역에서 보면, 1960년대 역사학과 생리학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전개되어 왔다. 잠녀들의 노동과 저항에 주목한 여성사적 접근(민경임 1964)과 생리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 이르러 법학, 경제학, 민속학, 지리학, 역사학, 여성학, 인류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그 흐름이 1990년대까지 이어지며 여러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잠녀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는 미 국무성의 후원을 받고 이뤄진 연구였다(Hong and Rahn 1967). 그리고 제주도의 잠녀만이 아니라 한·일 해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들 연구는 제주도의 지역학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으며, 제주 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데에는 1970년대 초반 고 강대원 선생의 <해녀연구>(1973)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고려된다. 이 저작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잠녀(잠수)의 권인문제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잠녀 연구사에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은, 이 저작은 제주도 인문사회과학의 본격적 연구를 이끌어내는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잠녀들의

노동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잠녀’에 대한 제주사회의 바깥에서 보는 외부적 관심, 그리고 수중 생리학적 관심을 제주도 내부의 사회과학적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1960년대 태동하기 시작한 잠녀 연구가 오늘날 제주도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영역에서 자리 잡은 데에는 외부 연구자들의 학술적 주목과 재야 연구자의 노력, 그리고 제주도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제주도 역사문화에 시선을 둠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하겠다.

II. 제주 잠녀에 대한 연구 성과 - 주제별 접근

제주도 잠녀에 관한 연구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양대 산맥에서 지속되었으며, 단순히 연구의 양만을 놓고 본다면 1980년대에 이르러 크게 진전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잠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와 별개가 아닌 것으로, 이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은 제주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성장을 의미하며, 또한 제주학이라는 지역연구의 한 축으로서 성장해 왔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다뤄온 연구주제들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되짚어보고자 하며, 또한 앞으로 잠녀 연구의 과제가 무엇인가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제주전통문화와 잠녀

1980년대 잠녀 연구는 제주사회에 대한 분석과 궤를 같이 하며 이뤄진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김영돈, 김두희 1982;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 1986). 그리고 이후 잠녀 연구에서 민속학적 연구를 견인차 하였던 것은 고 김영돈 교수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며, 이 분야의 연구는 어로활동과 도구와 민요, 신앙(굿)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많은 성과가 축적시켜 왔다(제주도 1996; 김영돈 1999; 이성훈 2005; 좌혜경 2002; 강소전 2005; 좌혜경·고창훈·정광중·권상철 외 2006).

잠녀 연구가 제주도 전통문화와 긴밀하게 인식된 데에는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제주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잠녀연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말미암아 ‘잠수들이 사라진다’라는 지역적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사라지는 문화의 기록’으로서 잠수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들로 이어져 왔다.¹⁾ 잠녀와 이들의 어로 “물질”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들의 어로를 이색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잠녀의 물질은 연약한 여성이 하는 특이하고 이색적(異色的)인 작업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지역의 언론을 통하여 재생산되면서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²⁾

잠녀들의 물질과 의례는 과거의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전통문화의 상징이지만 또한 생업자들의 생활세계

1) <제주해녀의 보전과 계승 방안>(제주해녀의 보전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탐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주최, 2004.9.24.);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해녀가치의 보존 전승>(잠녀기획세미나 자료집, 제민일보사 주최, 2006.4.14.);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6.7~8.) 등. 사라져가는 잠수들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2000년 초반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방안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2002년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제주해녀(잠녀)> 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2006)로 발간되었다.

2) 제주 잠수들의 부지런함과 힘든 어로 생활을 다룬 KBS·MBC 제주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으며(KBS 제주방송국 2003; MBC 제주방송국 2006), 제주지역의 신문과 주간지들(1980년대)도 제주여성의 근면함과 역척스러움으로서 이들의 생활을 보도해 왔다.

이다. 잠녀들의 어로활동과 의례를 전통과 근대의 이분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서 강경희(1997)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과 외래종교의 침투로 인한 문화적 대응으로서 전통의 재창조를, 이선애(2003)는 자원이용과 보전활동에 전통적 요소로서 의례활동을 연관시켜 고찰한 바 있다. 제주도 해안마을의 샤머니즘 의례가 활발한 것은 해양 어로활동을 지속해 온 잠수집단을 주요한 배경으로 한다(하순애 2003). 동김녕리 잠녀회의 “잠녀굿”은 조직적으로 거행되는 집단의례로 곳에서 잠녀들은 자손으로, 어로공간인 바다는 그들의 조상신의 세계로 관념되는 신화적 친족관계가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안미정 2007).

2. 제주여성의 일

초창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잠녀가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하는 어로의 특징에서 출발한다. 물질이라는 수중 어로방법이 보여주는 특징에 주목한 것이며 이를 여성이 한다는 데 있었다. 한국에서 나잠어업은 현재 ‘여성의 일(work)’로 인식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피하지방층이 두텁기 때문에 수중에서 높은 내한력(耐寒力)을 가진다는 생리학적 연구(Hong and Rahn 1967: 43)로부터 여성에게 나잠어가가 적합한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어왔다.³⁾ 그러나 역사적 문헌연구를 통해 나잠어로는 여성에게 ‘부과’되어 온 노동이었으며, 더 깊은 곳에서 수중어로를 하였던 전복채취꾼(“포작인”)들은 남성이었다는 것도 밝혀졌다(박찬식 2004). 일제시기에 이르러 제주도 밖으로 출어했던 잠녀들의 노동은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과 제주도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규명되어 왔고(제주도 1996; 김영돈 1999; 진관훈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로가 농경에 비하여 천시되어온 유교주의 문화 속에서 잠수들의 어로활동은 더욱 가내적/사적 영역에 한정된 채 여성 개인의 희생과 강한 생활력, 근면함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주류 담론을 형성해 왔다. 권귀숙은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사회적 지위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히려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근면함의 신화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들을 초과노동으로 내모는 담론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996: 241). 가부장제 사회에서 제주 잠수들의 노동이 마치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억압적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노동이 주요한 사회적 생산요소인 사회(이기욱 2003: 170)이다. 여기서 여성인구가 다수를 차지했던 제주도에 여성 노동을 중시한 담화들을 형성되어 온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경제활동의 중요성은 기존 잠수 연구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 조혜정은 1970년대 말, 제주도 잠수사회의 노동의 성별 분업과 성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Cho 1979)에서 여성(잠수)은 마을생활의 사회경제적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성인(social adults)”임을 지적하였다(Cho 1979: 267). 이러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와 실제적인 여성지배가 상호작용하고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양편비우세의 사회(neither-dominance)”로 보았다(Cho 1979: 268).

3) 이 연구는 한 일 나잠업자들이 수중환경의 적응현상이 훈련 혹은 유전적인 소질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심을 두었다. 나잠업자들은 정상인(비잠수자들)과 비교하여 특정 유전적 소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훈련으로 한랭 환경에 적응능력에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이 주로 나잠업을 하는 것은 한랭지역에서 지방층이 두꺼운 고래나 물개가 생존하는 것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피하지방이 두껍기 때문이라 하였다. 더 편리하고 덜 힘든 생활방식 때문에 나잠어로는 20세기 말에 사라질 것이고 스킨스쿠버 혹은 현대적 수중 장비를 가진 дай버들에 의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Hong and Rahn 1967: 43). 이러한 해석은 다른 연구(강대원 1973; 제주도 1996)에서도 재인용되어 왔다.

3. 성 역할과 생활세계

물질은 여성의 생계수단으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일은 자신의 정체성과 여성의 생활세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잠수들의 어로 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농사와 어로의 겸업과 생애사(生涯史)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일상생활에서의 성 역할(Cho 1979; 민경임 1964; 김은희 1993)과 잠수들의 생활과 생애 연구(Hong 1997; 유철인 1998; 오선화 1998; 양원홍 1999)가 있다. 홍귀영(Hong 1997)의 한 잠수의 생애사 연구는 유교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발전시키고 갈등하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심리적 활동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편성·조정·형성하며 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시기 잠수들의 어로생활사에 대한 기록(김영, 양징자 2004(1988))과 한국과 일본의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한 제주 출신의 잠수들의 생활연구(李善愛 2001)는 제주잠수들의 식민지 상품경제 하에서 타지로 이동하였던 임노동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제주 잠수들의 생활사에는 역사적 배경에서 여성생활자의 경험과 함께 “물질”이 생계수단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그러한 “물질”이 여성 자신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안미정 1997)가 있다. 잠수들은 마을의 부녀자이자 주민으로 해안마을주민의 생활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다(伊地知 2000). 수중의 나잡어로는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는 어로 기술이라는 점은 일본의 아마 연구(Plath 1993, 1997)를 통해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4. 공동어로와 자원관리: 공유지, 공동체

제주도 잠녀들의 물질은 집단적으로 이뤄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툃과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초의 채취어로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로가 이뤄지는 곳이 마을어장이다. 따라서 마을어장의 성격 및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어로권)은 잠녀들의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잠녀의 물질은 마을어장에서 이뤄지며 이들의 어로활동은 해양/자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노동이다. 자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든 사회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며, 어로의 영역에 대한(사회적)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잠녀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다(원학희 1985; 이기욱 1992; 김수희 2006). 어촌사회에서 마을어장은 공유자원이며, 거주민들에 의해 운영·관리·감독되고 있다. 제주도 잠수들은 잠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류 시간에 맞추어 집단적으로 수중어로를 전개한다. 이러한 잠수회는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며(한림화, 김수남 1987), 일제시기의 잠수항쟁(1931년~1932년)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의 민회(“citizen assembly”)와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고창훈 2006). 한국의 어촌사회 연구에서도 공동어로의 관행이 보고되어 왔으며 어장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정근식, 김 준 1993, 1995; 김준 2001, 2004, 김영돈 1993; 제주도 1996). 하지만 특정의 자원을 다수가 공유한다는 것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그런데 왜 제주도의 마을어장은 공유지임에도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은 것일까? 마을어장과 같이 생산의 토대를 공유한다는 것이 어촌사회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며(정근식, 김 준 1993: 330; 김영돈 1993: 152), 자원을 공유한다는 데에서 나아가 이용권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배타적인 사회조직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이기욱 1992: 46). 이처럼 어로 상황의 불명확성이나 어로도구의 공동이용과 그로 인한 사회조직의 형성, 생산자원의 공유처럼 어촌사회의 공동어로 관행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어 왔다. 한편, 공유자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권리의 실현과정은 잠녀

에 관한 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엿볼 수 있다(안미정 2007).

Ⅲ. 최근의 연구 경향

2010년대 들어 제주 잠녀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의 여성, 역사와 문화 연구 외에도 건강과 복지, 관광과 콘텐츠 개발, 문학과 예술, 언어와 환경 등의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다양화 된 배경에는 유네스코 등재라는 사회적 화두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으나 보다 크게는 기존의 전통적 담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힘들고 가난해서 하던 물질은 친환경적인 인간의 '웰빙'을 상징하는 것으로 노동(물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양적으로 보면 이전 연구들과 맞먹을 정도인데,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분과학문의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복지와 공유지, 문화유산 연구로서 잠녀가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건강과 삶의 질, 공공복지, 사고예방, 식습관 등 복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둘째, 서남해와 동해와 일본 등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의 해녀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 지역적 한정성을 보여온 이 연구가 확장성을 가짐으로써 지역 전통문화 연구에서 해양문화의 비교연구라는 또 다른 측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셋째, 관광 콘텐츠와 디자인 개발 연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주개발정책의 핵심이었던 관광산업의 육성과 제주관광을 표상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해 온 이미지 '잠녀'와의 긴밀한 상관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넷째, 1960년대부터 시작된 생리학적 연구는 최근에도 폐기능과 골밀도, 내한성 등을 주제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연속은 언어와 문학,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몇 연구들이 시간적 공백을 가지며 이어지고 있는 반면, 생리학적 연구는 비교적 연구흐름 선상에서 큰 공백(단절)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학술적 연구 성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주 잠녀에 관한 다수의 보고서들이 제주도정에 의해 발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제주도 해녀박물관을 개관으로 하여,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잠녀 문화의 물질적 토대라고 할 수 있던 마을어장은 수산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주 섬의 자원 재생산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Ⅳ. 향후의 연구 전망과 과제

간략하게나마 제주도 잠녀 연구에 관해 개괄해 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잠녀'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사회적 관심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잠녀 연구가 어떠한 연구 분야로 진전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여성 연구로서 잠녀 연구는 제주 지역연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문의 연구는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정체성, 역사성, 제주도민의 생활세계 연구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둘째, 수산경제 부문의 연구가 잠녀 연구에서 지속되리라 본다.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이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물리적 토대가 '섬'이라는 것은 자원관리와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의 중요성에서 늘상 제기되면서 결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특히 초원과 산림처럼 바다 역시 제주도민의 환경을 구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원초적 공간(토대)이다. 물질은 잠녀들의 바다에 대한 의미와 가치, 세계관 등을 연구하는 데에는 물론 수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두 가지의 성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잠녀'의 물질은 제주도 연안경제의 특수성과 도서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적 관심 대상이 되리라 본다.

셋째, 앞의 내용과 연계해 바다는 공유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양문화연구에서 공유자원의 이용과 분배에 대한 탐구는 중요하게 다뤄지며, 환경과 지속적 성장 및 공존에 대한 연구와 연결된다. 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문화로서의 비교연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리라 본다. 게다가 공존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공동체 문화는 앞으로도 주목되며, 잠녀들이 공유자원을 획득함에 있어 노동을 통한 권리 실현, 개인들의 권리와 노동 간의 형평성 조율, 여성들의 연대 문화 등은 여러 연구자들의 지속적 연구대상이 되리라 본다.

넷째, 제주도 관광산업에 있어 '잠녀'는 모티브로 제공되고 표상화 역시 이어지리라 본다. 다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관광문제로 지적되는 지역주민의 소외감, 대상화 등은 잠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소득의 보전을 이해 물질의 상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주민에 의해 스스로를 상품화 하는 행위는 주제성보다 상품화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 이러한 '선택'이 이뤄지는 사회적 배경과 요인들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게다가 문화 상품화에 따라 유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한 기록으로서 구술사적 접근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연구방법론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록으로서 제주의 근현대사 연구에도 중요하다. 식민지와 냉전체제의 경계를 넘나들었으며, 제주도와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이동, 국내 지역 간 입어 분쟁에 관해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관습과 세계관 등은 전통적 지식으로서 미래적 가치를 가진다. 이들의 세계관에 대한 주목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으나 최근 그 시작이 이뤄지고 있다.